

# 한 차원 업그레이드 소형 SUV...남성 홀리는 '작은 거인'

광주 생산 기아차 셀토스 타보니...

감각적 디자인에 첨단 안전 중무장  
내부 넓고 준중형처럼 공간 쾌적  
소형SUV 중 차로유지보조기능 첫 적용



셀토스 내부 인테리어.

“셀토스를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물건이 ‘맥가이버칼’이었습니다. 작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적절한 활용도를 지닌 동시에 모험성을 불러일으키는 터프한 감성, 그게 셀토스입니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스포츠타일리티차) ‘셀토스’의 시승 행사를 마련한 기아차 광주공장 김영삼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이어 “소형 SUV이지만 감각적 디자인에 첨단 안전·편의 사양으로 중무장한 작은 거인”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의 간판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지난달 3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셀토스를 처음 만났다. 첫 인상은 묵직하고 역동적인 남성과의 만남이었다. 젊은 여성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한 경쟁 차량을 겨냥해 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디테일은 살아있었다. 방향지시등을 보면 굽기가 서로 다른 3개의 ‘L-자형 LED램프’가 적용돼 깊이감을 더했다.

내부는 쾌적했다. 셀토스 라인업은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다.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정의했지만 직접 만나 본 셀토스는 준중형 SUV처럼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디자인은 깔끔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띄워 놓았고, 그 밑으로 에어콘 송풍구와 매끄럽게 처리된 조작부가 이어져 안정적이다. 기아차 최초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드램프 등은 세련미를 더했다.

셀토스에 올랐다. 시동버튼을 누르니 핸들 너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솟아올랐다. 속도·도로 정

보·주행 방향 등 계기판의 주요 정보들을 편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장치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출발해 시내 주행에 나섰다. 엔진 출력이 차랑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않고, 노면의 진동도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상대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자 디스플레이에 노란색 불빛이 깜빡이며 조심하라고 알려왔다.

시내를 빠져나와 호남고속도로와 무등산장으로 가는 산길 곡선로를 달렸다. 왕복 50km 거리였다.

시승차량은 최대출력 177마력에 최대토크 27kg/m의 힘을 내는 1.6 가솔린 T-GDI 엔진이 탑재됐다. 여기에 4륜구동,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가 결합된 풀옵션 모델이다.

호남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니 가법계 140km까지 치고 나갔다. 그 이상 속도를 내자 다소 흔들림이 느껴졌다.

동급 최고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성능을 테스트했다.

기아차는 셀토스에 전방충돌 방지보조, 차로이탈 방지보조, 운전자 주의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유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소형 SUV ‘셀토스’ 시승 차량이 광주시 북구 원효사 인근 무등산장길을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보조기능까지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ADAS를 적용했다.

소형 SUV 가운데 차로유지 보조기능을 기본 적용한 차는 셀토스가 처음이다. 이 기능은 차선 가운데로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휠을 스스로 조정해주는 것이다. 스티어링휠 오른쪽에 위치한 별도의 운전대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된다. 실제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은채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셀토스가 ‘화’를 냈다.

이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기능(HDA) 혹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결합해 사용하면 운전자 개입 없이도 차가 차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잠시라도 운전자가 손을 놓으면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무등산장으로 접어들었다. 무등산장길은 오르막과 곡선으로 이어진다. 고속도로에서 느끼지 못했던 주행감이 답답해졌다. 오르막에서 풀액셀을 밟아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알고보니 에코모드였다. 돌아올때 스포츠모

드를 선택하자 답답함은 사라졌다. SUV라는 한계를 벗어나 밟는 대로 속도감있게 질주했다.

지난달 24일 출시한 셀토스는 8일만에 3335대가 판매됐다. 누적 계약대수는 8521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일반고객에게 셀토스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승 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시승 가능한 지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광주 드라이빙시승센터(062-371-54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 4MATIC+’ 출시

쿠페·카브리올레 2종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 4MATIC’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차량은 AMG만의 감성을 살린 새로운 디자인으로 강렬하고 역동적인 외관을 완성했다는 평이다.

AMG 4.0 l 8기통 바이터보 엔진과 혁신적인 4MATIC+ 사륜구동 기술, AMG 스피드시프트 MCT 9단 변속기 등은 외관과 어울리는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트윈스쿨 터보차저가 장착된 AMG 4.0 l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27마력 높은 최고 출력 612마력과 최대토크 91.8kg.m의 폭발적인 성능을 구현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가 걸리고, 최고 속도 250km에 도달한 후에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유지한다.

사륜구동 기술인 4MATIC+는 모든 도로와 노면 조건에 따라 후륜구동에서 사륜구동으로, 다시 사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완벽하게 가변 동력을 분배해 최적의 트랙션을 확보하며 모든 조건에서 높은 핸들링 안정성을 제공한다.

외관은 역동적이고 강렬해졌다. 전면에는 강렬한 디자인의 AMG 전용 파나메리카, 라디에이터 그릴, 제트윙 디자인을 적용한 새로운 프론트 에이프런이 장착됐다.

‘더 뉴 S클래스’의 스타일리시한 특징도 실내에 고스란히 반영돼 S클래스만의 럭셔리함을 이어갔다.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 4MATIC+’ 쿠페와 카브리올레에는 메모리·통풍·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시트가 장착됐고, 앞좌석과 뒷좌석의 등받침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 4MATIC+ 쿠페.

에는 나파 가죽과 전용 IWC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됐다.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 4MATIC+’ 쿠페

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2억2010만원, 카브리올레는 2억4380만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버스·화물차 내년부터 과태료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cm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 대책을 내

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우리 동네 미술관 방문객은 떠나는 문화비캉스  
내부의 공동체 축제 '비스카 자트라'

**특집 Culture Vacation**  
우리 동네 미술관·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비캉스

- 미술관 피서, 예술적으로 시원하네
- 흥미진진, 박물관은 살아있다
- 사립미술관은 문화도시의 원동력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⑤ 프랑크푸르트 시립중앙도서관 & 뒤셀도르프 공립도서관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① 독일 바우하우스는 지식혁명 일군 '인류 첫 창조학교'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화행'⑥-10 해수어 키우는 즐거움에 빠진 광성진씨 "보살피는 마음이 일상에 활기줘요"

기획 **왜 트로트인가**

- 팬덤 열기 변신 노력, 이유있는 트로트 열풍  
- 트로트 여왕으로 떠오른 송가인

문화 화제 **영화 촬영지, 목포가 핫하다**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② **하나된 공동체 '비스카 자트라' 축제**

유현준의 도시건축① **사냥 DNA 일깨우는 현대판 사바나 초원, 야구장**

예향 초대석 **60년 연기의 길 걸어온 배우 김성녀**  
"마지막날까지 무대에 있고 싶어요"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고향의 품에서 '향수'를 부른다**  
충북 옥천 정지용문학관

문화 화제 **영화 촬영지, 목포가 핫하다**

강제윤 사인의 남도의 섬과 특산물⑦ **계장보다 이것이 진짜 밥도둑**  
장산도 '기적국'

문화 현장 **DJ 서거 10주기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

2019 ACC WINE FESTIVAL **ACC월드뮤직페스티벌 10번째 무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당당한 노년 스타, 할머니 유튜버 박막례**  
은퇴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캠틴' 이범호

문화 현장 **유현준의 도시건축① 사냥 DNA 일깨우는 현대판 사바나 초원, 야구장**

문화 현장 **방탄소년단에 맞먹는 맛·멋·티한 슬로시티**  
부루스 浦

백년의 시간 따라 근대역사공복 걷기 **다도해바라보며 눈요기, 유달산 둘레길**